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안반수의경 ③

<안반수의경>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체계는 앞에서 설명한 10월(十誦) 가운데 앞의 육사(六事) 즉, 수식(數息)·상수(相續)·지(止)·관(觀)·환(還)·정(靜)의 여섯 가지와 네 가지 진리인 사성제(四聖諦)를 들어서 10월이라 말하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 37도품경(三十七道品經)에 합일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안반수의경에는 열 가지 지혜가 있다. 숨을 세는 수식(數息), 숨과 마음이 서로 따르는 상수(相續), 마음이 숨에 머무는 지(止), 자재로운 상태인 관(觀), 자기에게 돌아오는 환(還), 깨끗한 상태인 정(靜) 그리고 네 가지 진리인 사제(四諦)이다. 열 가지 지혜가 이루어지면 이른바 삼십칠도품경(三十七道品經)에 부합되어 그 행을 이루는 것이

것이 아니라고 관하는 수념처(受念處),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하고 있다는 무상(無常)을 관하는 심념처(心念處),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고 관하는 법념처(法念處)이다.

다음은 네 가지 올바른 노력을 뜻하는 사정근(四正勤)이 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나쁜 습성이나 마음을 끊기 위해 애쓰는 율의단(律儀斷), 이미 나타난 악행이나 마음을 끊는 노력인 단단(斷斷), 아직 나타나지 않은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호단(護法斷), 이미 나타난 선함을 더욱 증대하기 위해 힘쓰는 수단(修斷)이다. 이 네 가지 노력들은 마음의 해탈함을 꾀음으로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다음에는 다섯 가지의 훌륭한 힘인 오근(五根)이 나타나게 된다. 뛰어난 믿음이 생기는 힘인 신근(信根), 부지런히 노력하는 힘인 정진근(精進根), 올바

사성제 등 10가지 지혜 제시

깨달음 얻게 하는 37가지 수행방편 눈길

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안반수의경은 들숨과 날숨에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열 가지를 들고 있는데 정정한 본심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일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괴로움의 원인을 알게 되며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올바른 길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열 가지가 모두 이루어지면 안반수의경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으로 실법하고 있는 내용과 합일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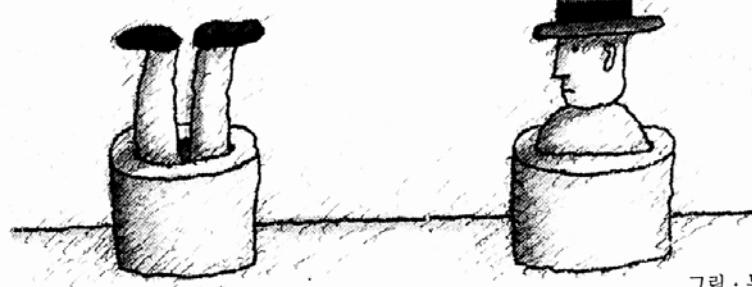
<삼십칠도품경(三十七道品經)>이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서른일곱 가지 수행 방법인데, 삼십칠도품이라고도 한다. 도품은 깨달음의 종류라는 뜻이다. 도는 지혜, 곧 깨달음이며 품은 종류이다. 먼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념처라고 부른다. 부모에게서 받은 육신이 부정하다고 관(觀)하는 신념처(身念處),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은 참된

것을 생각하는 힘인 염근(念根), 한결같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의 힘인 정근(定根), 지혜로서 세상을 보는 힘인 혜근(慧根)인 것이다.

다음으로 또 다른 힘으로서, 믿는 힘인 신력(信力), 부지런히 노력하는 힘인 근력(勤力), 올바른 것을 생각하는 힘인 염력(念力), 선정의 힘인 정력(定力), 지혜의 힘인 혜력(慧力)을 얻게 된다.

이여 깨달음의 지혜를 도와주는 일곱 가지를 두게 되는데, 모든 법을 가려서 선악을 선택하는 택법각지(擇法覺支), 수행의 바른 길로 정진하는 정진각지(精進覺支), 마음에 산함을 일어서 기뻐하는 희각지(喜覺支), 그릇된 번뇌를 제거하고 능히 선한 것으로 나아가는 제거각지(捨覺支), 밖의 세계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사각지(捨覺支), 명상에 들어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정각지(定覺支), 생각을 잘 가다듬어 지혜로 가는 생각만을 하는 염각지(念覺支)가 그것이다. 이것을 칠각지라고 한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그림·문병성

물질과 정신 둘로 보지 말라

불교와 과학 <18>

현상과 본질

서양사상의 틀은 기본적으로 현상세계를 넘어 초월세계를 찾아

가는 구도를 갖는다. 플라톤에 의해 정형화된 서구철학은 현상계와 초월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진리는 반드시 초월계에만 존재한다는 믿음 위에서 발전하였다. 기독교의 경우 두 역시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구분은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절대적인 구획의 경계선이어서 신의 성취인 저 세계는 이 세계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서구철학의 간판 격으로 등장하는 데카르트에서도 모순으로 가득 찬 현상세계를 넘어서 자족적인 실체의 영원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현상과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은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축이라는 생각이 바로 서구의 현상과 본질의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과학 본질-현상 이원론 과학혁명 선도

불교 공과 색 따로 보지 않고 中道 주장

현상과 본질이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서구 이원론은 근대 자연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사상적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은 갈릴레오의 운동법칙을 낳게 하였다. 갈릴레오는 지난 이천 년 동안이나 운동의 법칙을 지배해 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학에 대한 최초의 도전자였다. 물체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계속적인 힘을 가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학과 달리, 갈릴레오는 외부의 힘을 한번만 물체에 작용시키면 영원히 운동한다고 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학이 옳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외부의 힘이 물체에 한번만 작용하면 얼마 못 가서 그 물체는 서고 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당연한 경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저항과 마찰이 없는 이상상태(ideal state)를 새로이 상상하였다.

갈릴레오 당시 저항이 없는 진공상태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사고실험(思想實驗)이라는 머리 속에서만 하는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학이 틀리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그 사고실험은 너무나 간단했다. 경사면에서 물체에 힘을 한번만 주어서 공을 아래로 굴러가게 하면 그 공은 점점 빨라진다. 그

리고 공을 아래서 위로 힘을 가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진다. 그렇다면 위로도 아래로도 아닌 평면에서 공에 한번만 힘을 가한다면 점점 빨라지지도, 점점 느려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속도도 아니고 감속도도 아닌 것을 등속도라고 말한다. 등속도란 한번 물체에 힘을 주면 그 초기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다. 결국 초등학교도 알만한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운동의 등속도 원리를 갈릴레오는 찾아내었다.

이러한 운동법칙의 발전은 운동의 현상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학이 현상에 얽매어 있던 것이라면 갈릴레오의 운동학은 본질을 들여다 낸 결과였다. 달리 말해서 저항과 마찰의 세계를 경험의 현상계라 한다면 저항이 없는 이상상태를 경험을 초월한 본질계라고 보는 것이다. 확실히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은 서구의 종교와 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서구의 기독교를 오늘날까지 지탱해 온 사상적 뿌리였으며, 서구 근대과학혁명을 낳은 세계관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론의 생각은 물질과 정신을 구획하여 물질을 현상계에 그리고 정신을 본질계에 배속하고, 그들 사이의 우열을 규정함으로써 수많은 사회적 모순을 낳게 하였다. 먼저 물질을 저급하고 오류의 범주로 놓고, 정신만을 고급하고 진리의 범주로 높음으로써 추상적인 세계가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지배하여 물질의 현실을 오히려 구속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사상적 동기에서 서구 산업혁명 이후 기계에 의해 인간이 지배당하고 마는, 말하자면 환경위기와 그리고 인간소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서구 산업화의 가장 큰 문명적 질병의 하나인 인간소외로부터의 탈출을 어떻게 시도해야 할 것인가는 현대인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라고 보아도 좋다.

그런 과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지면에서 말했던 공과 색의 관계를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과 색은 서구 이원론에서 말하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불교에서 공과 색이 하나라는 말은 너무나 자주 들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공과 색의 범주에 대하여 연연중에 우열의 판단을 하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색의 세계에 오히려 충실하지 못하는 현실의 결과를 자주 볼 수 있다. 색을 본질의 세계에서라면 미감함에 빠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공을 이치의 세계에서라면 보면 그 공도 허무해 질 수 있다. 기계와 정보에 얽매이기 쉬운 현대인에게 본질과 현상의 구별될 없는 중도의 눈은 삶의 중요한 좌표이기도 하다.

최희종/삼대 교수(dchoi@chiak.sangji.ac.kr)

외국 구법승 즐겨찾던 남방불교 중심 도시

지구촌 불교 / 스리랑카 아누라디푸라

불교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번쯤 가보고 싶은 아시아 불교 유적으로, 스리랑카의 아누라디푸라를 꼽는 데 망설이지 않는다.

이 곳은 1000년 이상 스리랑카 불교의 중심지이자 동남아 불교의 성지였다. 역사적으로 아누라디푸라는 인도에서 발생한 상좌부 불교의 동남아시아 첫 전래지이다. 부처님 사후 구전되어 오던 불교의 가르침이 처음으로 문자화된 곳이며, 이를 토대로 오늘날 불교의 원전으로 간주되는 팔리어 경전과 주석서들이 편찬된 곳이다.

불교 전래 당시 스리랑카 티사 왕은 인도승 마힌다 스님에게 왕궁 정원 예정지였던 넓은 땅을 기증했고, 그 자리에 커다란 사찰을 세웠다. 이 사원이 바로 스리랑카 불교의 중심이 된 '마하비하라' 사원인데, 그 주변에 다른 사원과 탑들이 하나 둘 들어서면서 아누라디푸라를 거대한 불교 도시로 변화시켰다.

5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마하비하라 사원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스님들이 수행했는데, 그 중에서 인도 출신의 붓다고사 스님이 큰 족적을 남겼다. 오늘날에도 남방 불교의 기본 교재로 널리 읽히고 있는 <청정도론> 등 수많은 주석서가 바로 그것이다.

인도발생 상좌부 불교 첫 전래지

경전도 최초 간행... 유적만 현존

이외에도 마하비하라 사원에는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많은 스님들이 불교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 중국의 구법승 법현을 비롯해서 중국, 인도 스님까지 이곳을 찾았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 미얀마 역시 이 시기에 마하비하라 사원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스님들에 의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5세기 이후 인도로부터 대승불교도 전해져서 스리랑카에는 한 동안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가 공존했지만 점차 대승 불교는 사라지고 상좌부 불교만 남게 됐다. 이후 스리랑카 불교의 중심은 풀론나루와, 캔디 등 남쪽으로 옮겨갔고, 아누라디푸라는 퇴락해 갔다. 지금은 당시의 불교문화를 짐작케 하는 유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스리랑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불교를 보통 소승불교라고 부르지만 현지 불교도들은 이 명칭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는 불교 승단의 발전 과정에서 당시 주류였던 계율과 수행 중심의 전통에 반발해 대중화되고 보살행을 강조하는 새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자신들을 대승, 기층 승단을 소승이라 불렀던 데서 유래한 것일 뿐 객관적인 명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상좌부 불교라는 예로부터의 이름이나 남방불교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명칭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서는 불교가 4세기부터 힌두교의 부흥에 의해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11세기 이후 인도를 침범한 이슬람 세력에 의해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따라서 오늘날 불교의 원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은 남방불교로 평가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팔리어 경전을 토대로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을 밝히는 데 더 큰 노력을 쏟고 있다. 대승 불교권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는 한편으로는 너무 알지 못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승이라는 편견 때문에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던 남방불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능력"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7-5300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藥也 (연년·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조사가 서쪽에서 온 큰 뜻?
직지인신 교외별전 불자문답
●오본래자도 五本來茲土
●전법구이정 佛法救迷情
●일화개오일 一華開五葉
●결과자연성 結果自然成

동경국제서화대전 제19회에서 준대상 당선

●2001년 신사년 진인도통 경신기도 종괄 입제일 안내
일경신 (양) 2월 25일 밤 입제 26일 밤 해제
이경신 (양) 4월 26일 밤 입제 27일 밤 해제
삼경신 (양) 6월 25일 밤 입제 26일 밤 해제
사경신 (양) 8월 24일 밤 입제 25일 밤 해제
오경신 (양) 10월 23일 밤 입제 24일 밤 해제
육경신 (양) 12월 22일 밤 입제 23일 밤 해제

●12사피들이 들어가 할 명당법과 사주학, 운명학, 성명학, 풍수 지리학, 양택·음택, 시주변행법을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직장회 집단기 강의법 명당은 아무나 들어갈수 없는 법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귀하는 인생의 승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인 경전 도통으로 명과 혼을 담고그린 달마상의 비법은 세태양의 운기로서 통한일을 당하러면 조용했던 집안이 시끄러운 집과 흥한대, 수백차단 초상상 문, 사명장, 이사 개입 노력해도 안되는 도통과 학업, 진학, 고시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달마도상을 한집에 한달마를 모시고 후대용 순금골도 999 달마 지상 지시서 생애소멸 건강, 부귀영화, 수명장수 말문이 터지지 않는 분 및 각종 경전에 숙려하시라. '특히, 이번 법회에 달마성기선무기공 달통보통으로 건강은 삼복에 있고 수명은 삼백에 있느니라. 이법은 조사께서 면벽 9년 수행하시던 건강법을 공개하오니 동참하시어 건강지도자 되소서.'

신사년 제 1회 0과1수의 교체 대운맞이 제62회 眞人道通 庚申大法會 윤달드는 해에 서성명성의 대운 받아 도통군자되소서

천년에 한번드는 1월 1일에 갑자일이 시작되는 해인법에 감추어진 대비밀당의 기도임을 명심할지이다. 이 기도에 임문하는 분들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2월 25일 2월 26일, 자시와 오시에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도통군자 갖대를 얻어 중상은 120세의 천안통 속명통에 도전하여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잠신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자 연기법을 도전하시어 12식의 법장보살 즉 율라대왕을 제도할 수 있는 사명자 도전 되소서. 하늘의 근본법도를 알게 못하면서 제멋대로 지거리는 잡도에 끌리어 눈먼거북의 종행 동타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즉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日本은 우리의 강산에 쇠뿔을 뺀 중공현황 황제는 우리의 마음에 쇠뿔을 뺀 사실을 당신은 알고계십니까? 우담바라의 비밀을. 2000년 5월 9일의 하늘의 대서사시의 광경을 이 법의 소식은 象·形·萬有 법의 갖대로 설계 범측, 범척 전공, 만유의 각 5대 주문이 없는 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어떠한 도통도 불가능하며, 다만 잠신에 끌리어 영망전장을 왜 모르며 명에 태상같은 중병과 육신과 명에의 삼독을 벗고 말문이 열리는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특히 이번 법회에 득도하시어 몸에 천병, 잠신, 살이찌는병을 소멸하시고 위로는 꺼져가는 민족의 혼과 일을 찾고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명자, 진인 도통 일류 스승 되소서.

●입 제 : 양력 2월 25일 밤 10시 ~ 2월 26일 亥時에 해제
●동참금 : 일금 5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일요일 밤 입제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권태일 선착순 동참
●전 화 : 02) 821-6622 / 04 923-3110 / 016) 239-3110 (1호선 노랑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7호선 신대방역 하차 버스 85, 25, 95, 26, 303, 26, 142, 26-3 모자원고개 하차 전좌오랑)

달마雄祖. 진인경신도통회장 天眞 眞人 泰日法師
달마 중약사도방 달마 선원 眞人 眞人 泰日法師